

교회 소식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과 가정,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김동수 장로님을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 교육부 추수감사절 Fundraising 결과 보고
 - Coffee 판매 (Sekwang-bucks): \$325.00
 - Dessert 판매 (Bakery): \$348.00
 - 반찬판매: \$1,215.00
 - Music Donation: \$121.00
 - 합계: \$2,009.00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옥수수와 삶은 달걀을 준비해주신 최병식 노미라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기세학 집사 (시 80:1-7, 17-19)
- 12월 안내: 박홍매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간구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2023년 문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Anderson Choi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Prayer-----	Hyojeong Teacher
Word of God-----	Mat 22:8-14 ----- Minyoung Suk
Sermon -----	“Expressing Our - - Thankfulness” --- Pastor Edwin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85(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함께
Hymn	151(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49(147)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대표기도 -----	시편 95:1-7a ----- 강승연 집사
Prayer	
찬양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요 13:1-11, 31-35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249(249) “주 사랑하는 자”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 13:1-11, 31-35)

영광의 때, 돌아가실 때를 앞둔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실 지 눈치 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겹옷을 벗고 종의 복장을 하고, 제자들의 신들메를 풀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시겠습니까? 서로 종 되어 발을 씻기겠습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과 상관 없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 노릇 했더니 종 취급한다고 분노합니다. 남을 낮게 여겼더니 나를 낮게 여긴다고 억울해 합니다. 금방 포기하고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내 안엔 그런 큰 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발을 씻기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 없습니다. 머리 같은 무슨 비교적 고상한 부분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말입니다.

가까이 하실 만한 충성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 눈치 싸움하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여기서 사랑하시니 끝까지 갑니다.

무슨 고상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해를 끼치지 말고 필요를 채우며 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밤에 무슨 고상한 강론이나, 신성한 의식이나, 고귀한 희생의 다짐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랑이 끝까지 갑니다. 지금 안하면 그 때도 못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사랑”은 세상 사랑이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며 때론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돕지 못해도 해가 되는 일을 삼감시다. 주님 일을 대신하려 말고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웁시다. 내가 못하거나 내 역할이 아니면 주님께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자격에 따라 차별하지 맙시다.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 없어 보여도 오래 참고 사랑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둭니다. 내가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추수의 주인이 거둭습니다. 씨만 뿌린 일도 지금 받으십니다. 지금 사랑해 주십니다.